

## 경기도

### 양구, 4월 말까지 '봄철 가축방역기간' 운영

양구군은 가축의 안전한 성장과 우수한 품질을 위해 4월말까지 봄철 가축방역기간으로 설정, 운영한다.

가축방역은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가축을 돼지열병, 광견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근본적으로 막아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우수한 육류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접종하는 대상가축은 58만여 마리로 소 3,470마리, 돼지 37,310마리, 개 15,400마리, 닭 51,800마리, 꿀벌 12,600군 등이다.

가축전염병은 전염성이 강하여 일부 농가나 지역에서 발생하면 신속히 퍼져 축산농가에 막대한 손실은 물론 관련 산업도 큰 손실을 입게 되고, 청정지역의 이미지 손상으로 농특산물 판매 전반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군은 전염병 발생 근절을 위해 축산농가가 한가구도 빠짐없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돼지, 닭, 꿀벌은 농가에서 직접 접종해야 하므로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용인시, G마크 축산가공품 학교 급식

용인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축산 가공품이 학교 급식으로 제공된다.

용인시는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한우람·성산한방포크·동충하초포크·마니커 닭고기 등 G마크를 받은 우수 축산 가공품을 초·중·고교 144개교 학교 급식에 공급한다고 지

난 3월 16일 밝혔다.

시(市)가 13억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급할 축산가공품들은 G마크 축산물브랜드 생산단체에서 직접 생산한 1등급 이상의 한우고기와 돼지고기, 1+ 등급 이상의 닭고기 등이다. 용인 관내 161개 학교 가운데 참여를 신청한 초등학교 87개교, 중학교 40개교, 고등학교 17개교 등 144개 학교 12만8469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희망학교에 대해 3등급 기준으로 공급되는 학교 급식 축산물과 1등급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학교를 지원하게 된다.

### 용인시, 10억원 투입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용인시는 축산농가에 막대한 경제 손실을 야기하는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해 올해 예방접종 약품비로 10억여 원을 투입해 닭 뉴캐슬병 외 14종의 급성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닭은 4,600만수에 닭 뉴캐슬병 외 2종의 예방백신을 접종한다.

## 강원도

### 닭갈비전용 고구마 품종 선발

닭갈비는 강원도 지역특산요리로 춘천지역을 중심으로 대중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대표요리 중 한 가지이다. 닭갈비의 맛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고구마가 필수재료로 들어가고 있으나 닭갈비와 잘 어울릴 수 있는 전용품종이 선발되어 있지 않

아 닭갈비 맛을 더해주는 고구마 전용품종 선발이 요구되어 왔다.

닭갈비 요리에 좋은 고구마는 세척과 채를 썰기에 쉽도록 크기가 크고·굴곡이 적으며 모양이 둥글어야 한다. 또한 닭고기의 맛을 변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당분함량이 낮은 품종이 적합하다.

이에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는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재배적 특성이 우수한 품종을 선발하기 위하여 2009년 시험연구한 결과 3개 품종(맛나미·신건미·신황미)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이들 3품종은 괴근 수량이 일반 식용품종에 비해 1.2~1.4배 높고, 개체 크기가 100g 이상인 큰 고구마 비율이 높으며, 소비자를 대상으로 기호도를 조사한 결과 높게 나타나 닭갈비 요리에 적성이 높은 품종으로 판정되었다.

## 충청남도

###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247억여원 자금 지원

충청남도가 올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지난해 지원액 185억여원에 비해 33.5%가 증가한 247억여원을 지원한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한·미 FTA 등으로 어려운 축산업 여건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과 이를 위한 생산성 향상의 필요에 따라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한육우, 젓소, 돼지, 닭, 오리 사육 전업농가(2005년 12월 말 기준 축산업등록제 등록농가)를 대상으로 축사의 신·개축 및 내부시설 개·보수를 지원한다. 단 증축은 불가하다.

축종별 사업비 단가는 한우·젓소가 2억5천만원, 돼지 11억2천5백만원, 산란계 17억5천만원, 육계 8억7천만원으로 차등 지원된다.

시·군별로는 ▲홍성군 26농가, 26억여원 ▲예산군 21농가, 30억여원 ▲논산시 19농가, 14억여원 ▲공주시와 당진군이 각각 17농가, 44억여원과 17농가 19억여원 ▲천안시 11농가, 60억여원, 이밖에 ▲서천군, 보령시 등 6개 시·군 25농가, 53억여원을 지원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어려운 축산업 여건을 이겨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산농가에서 적극 추진함과 더불어,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조기 추진해 어려운 경제상황 타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천안시, 5월까지 SI 방역 활동 지속

천안시가 S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방역을 오는 5월까지 지속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천안시는 도래했던 북방철새의 이동과 국내 야생조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체가 검출되는 등 방역의 필요성이 유지되고 있어 특별 방역대책 상황실을 연장 운영하고 방역 및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하기로 밝혔다.

또 종오리·육용오리 등 SI 발생 위험이 큰 46농가에 대한 사전 예찰을 강화하고, 매주 수요일 일제 소독의 날 운영과 자율소독을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시는 닭, 오리, 메추리 등 가금류 사육 162농가에 대하여 지역별 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임상 예찰을 강화하고 방역전용 차량을 이용한 양계

농가 순회소독을 강화하는 한편, 소, 돼지, 사슴, 염소 등 구제역 우려가 있는 사육농가에 대한 공동방제단을 통한 방역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천안시는 사육농가, 생산자단체,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방역 교육과 함께 홍보활동을 통해 효율적인 방역을 이끌어 간다는 계획이다.

## 충청북도

### 제천시, 전국 우수지자체로 선정

제천시가 가축분뇨자원화 사업 부문에서 전국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5억원의 상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가축분뇨자원화 부문 우수지자체를 선정했는데 제천시와 연기군, 함안군 등 3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시는 그동안 수질오염방지와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뇨처리 지원을 확대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등 가축분뇨자원화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다.

올해 시는 상 사업비 5억원을 포함한 총 4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농가에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련 장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내에는 1,900여 가구에서 한우, 젓소, 돼지, 닭 등 주요 가축 100만두(수) 정도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수질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시는 자연순환농업 육성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진천군,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팔건어

진천군은 2010년 가축전염병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군은 동 대책에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축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농가별 예찰요원을 편성 운영하며 방역전문업체로 구성된 공동방제단을 편성하여 닭 뉴캐슬병 발생예방을 위해 동질병 예방백신을 800만수분을 공급하는 등 총 1천500만두(수)의 가축전염병 예방백신을 공급하여 2002년 이후 이어져 온 청정 축산지역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 경상남도

### 밀양시,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지원

밀양시는 소, 돼지, 닭 등 가축의 각종 사고 및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유지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지난 3월 14일 밀양시에 따르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 사업비 1억4,600만원을 확보해 자금 소진 시까지 가축재해보험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농가의 재해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의 50%인 1억1,242만원의 축산발전기금을 확보하고 또한 농가부담의 50% 중 15%인 3,374만원을 지방비로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축산 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실제적으로 보험료의 35%만 부담하면 되므로 가축의 각종 사고 및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재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소(생후 2개월 이상의 한우, 육우, 젖소)·닭·오리의 경우 가축사육시설 300㎡ 이상, 돼지는 50㎡ 이상인 농가이며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제외된다.

또한 농협중앙회 및 조합,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민영보험사로만 보험계약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FTA협정 등 축산물수산물수입 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각종 재해로 인한 가축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하여 소득증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많은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경상북도

### 영주시, 축산환경개선제 9천만원 지원

영주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발생을 억제하고 쾌적한 사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 추진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3월 10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한우, 젖소, 돼지, 닭 등 주요 축종별 생산자단체장이 참석해 효능이 우수하고 저렴한 제품을 선정하고 축종별 사육규모별 배정 방안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 협의했다.

시는 2010년도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비 총 9천만원을 이번 협의회에서 추천된 제품에 한해

지원하며 상반기내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축산환경개선제를 통해 가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해 축산 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제를 통해 가축의 장내 세균총의 변화를 유도, 병원성 대장균의 수를 감소시키며 장기 내 항생물질을 생산해 각종 독성 아민류의 합성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광주광역시

### 재래시장 '조류인플루엔자' 일제검사 실시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관내 재래시장 유통 가금류와 식용오리 농장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일제검사를 오는 4월 1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검사는 양동시장, 말바우시장, 비아시장, 송정매일·5일시장, 남광주시장 등 재래시장 5곳에서 유통되는 닭, 오리와 식용 오리 농장의 가금류를 대상으로 분변과 인후두 시료를 채취해 새롭게 개발된 조류인플루엔자 유전자 진단키트를 사용, 병원체 검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H5형·H7형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사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며, 1차 검사결과 양성 의심시료에 대해서는 국립수괴과학검역원에 최종 정밀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원인의 하나인 재래시장에 대한 일제검사를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청정지역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다"며 "축산 농가에서는 폐사율이 늘어나거나 산란율이 떨어지는 등 주요 증상 외에도 질병에 감염됐을 만한 이상증상이 나타날 경우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신고전화 국번없이 1588-9060).

## 전라남도

###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260억원 지원

전라남도는 국가간 FTA 추진과 DDA 협상 등 축산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해 친환경 녹색축산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올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260억원을 지원한다고 지난 3월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51농가에 234억원보다 11%가 증가한 것이며 전국 879농가의 1천355억원의 19.1% 수준으로 전국 최다 확보다.

축종별로는 한우가 117농가 114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돼지 45농가 66억원, 닭 5농가 31억원, 젓소 28농가 25억원, 오리 10농가 24억원 등의 순이다.

지원사업비는 축사 신개축 및 개보수, 환기시설, 자동급이시설, 폐사축처리시설 등이다.

전남도는 올해 친환경축산물 인증 5천호 조기 달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사업 대상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사업 추진을 독려해 상반기 중 사업비의 60% 이상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까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한 결과 자연재해에 약한 가설축사가 30%에서 11.5%로 급

감한 반면 환기상태 개선 정도는 '양호'가 67%에서 97%로 크게 개선됐으며, 특히 1천551농가가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 사업이 친환경 녹색축산 기반 구축에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병선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시장 개방 확대와 안전성을 중시하는 소비형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8년부터 친환경 녹색축산을 도정의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2012년까지 1만천 농가가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축사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전라북도

### 왕궁·용지 축산단지 공영개발

새만금 수질 오염의 주 요인인 익산 왕궁과 김제 용지 한센인촌 축산단지 환경대책이 마련된다.

지난 3월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익산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한 왕궁 축산단지 환경대책을 김제 용지까지 확대해 새만금 유역의 종합적인 수질개선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이 환경부 등 관계기관 고위공무원단으로 구성된 '왕궁·용지 환경개선협의회'를 구성했다.

환경개선협의회는 오는 4월 말까지 정부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환경개선방안은 왕궁축산단지를 전면 철거한 다음 재개발하고, 용지는 생활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왕궁축산단지 이주 대책’은 총사업비 4,722억원을 투자해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2011~2015년 국비 등 2,500억원을 투자해 단지 269만㎡의 토지와 축사·주택 등을 사들이고 폐업보상을 추진한다. 도와 익산시는 2004년부터 단지 내 토지 13만㎡를 이미 매입했다.

토지 매입과 보상, 집단 이주 등이 마무리되면 도와 익산시는 2016~2020년 지방비 1,800억원을 투입해 단지 전체 282만㎡를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한다. 이곳은 한국 LED협동화단지와 국가 식품클러스터 추가 부지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왕궁축산단지 내 웅덩이 축분제거 사업과 한센인 500여명이 입주할 수 있는 양로시설 건립도 병행 추진한다.

김제 용지축산단지는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환경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을 하루 300톤 규모로 3배 늘리고 축사시설 현대화, 마을 하수도 정비, 한센인 복지회관 건립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94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한편 1949년에 익산시 왕궁면 일대에 조성된 왕궁 축산단지에는 현재 한센인 700여명을 포함해 1,100가구 2,200여명의 주민이 돼지 14만 마리와 닭 5만 마리, 한우 790마리를 키우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곳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1,000톤 가량이 매일 새만금 상류인 만경강으로 흘러 수질과 악취의 주범으로 지적받고 있다.

김제 용지 축산단지에선 한센인 등 360가구 800여명의 주민들이 122만여마리의 닭과 오리 등을 사육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 ‘가축건강농장’ 지정 확대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축건강농장’ 지정 대상을 토종닭, 낙농 분야까지 확대한다.

제주도는 청정 축산물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토종닭과 낙농 분야를 가축건강농장 지정 대상에 추가해 현행 산란계와 양돈 등을 포함, 가축건강농장 지정 대상을 모두 4개 분야로 늘렸다고 지난 3월 3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지난해 가축방역 우수농가로 평가된 농장에 한하며, 농장의 방역상황, 가축 위생관리, 축사 환경 등 사육환경 현장조사와 가축전염병 등 질병검사를 거쳐 성적이 우수한 농장을 가축건강농장으로 지정하게 된다.

제주도는 지정된 농장에 대해 건강농장 유지비로 200만원씩 지원하고, 축산업 지원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하며, 해당 농장에 제주도지사의 인증패를 설치해 준다.

도는 2007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가축건강농장 지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지정된 농장은 35곳이다. 

2010년 5월 28일(금)~30일(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0 치킨 페스티벌”이 열립니다.